

이 연 사 소 식

삼성데이터시스템

「포카스」 국내 공급 개시



全 相 昊 사장

삼성데이터시스템(대표 全相昊)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간편하게 해주는 제4세대 언어「포카스」의 국내 공급을 시작했다. 美 IDI 사가 개발한 포카스는 기존 프로그래밍언어인 코볼이나 PL1 등에 비해 프로그램 생산성을 10배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

同社は 이 시스템을 이미 동방생명·대한보증보험·삼성경제연구소·포항제철 등과 장애자올림픽경기운영관리시스템에 공급·활용토록 하고 있다.

OA- II 그림벗 개발

한편 同社は 순수 자체기술로 개발한 문서작성용 소프트웨어 OA-II 시리즈인 OA-II 그림벗을 최근 개발했다.

OA- II 그림벗은 SPC-3000 시리즈 기종의 사무용 그래픽작성 소프트웨어로 표작성이 간편하고 원그래프·막대그래프를 비롯, 히스토그램·산포도 XV 그래프 등 9가지의 다양한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메뉴방식으로 HELP기능과 함께 그래프의 확대·축소가 가능, 그래프의 대종묘사와 더불어 최대 500개의 항목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프상에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OA- II 그림벗의 특징이다.

자동참고제어시스템 개발

同社は 또한 최근 완벽한 재고관리가 가능한 자동참고제어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일반참고시스템에 컴퓨터를 이용한 제반 응용기술을 도입하여 물류의 입·출고 효율을 향상하고, 신속·정확한 재고관리와 축적물류에 대한 안전성 및 면적당 축적물을 높이는 목적으로 이용된다.

재고관리·기기제어감시·그래픽 감시기능·에러복구기능·참고관리·단계별 백업기능·파일전송 등이 시스템의 주요기능이다.

기존 시스템에 비해 가격대 성능비가 우수하고, 어느 형태의 참고에도 쉽게 적용이 가능한 이 시스템은 현재 동서식품의 부평창고에 설치, 운영중이다.

쌍용컴퓨터

드래곤 386시리즈 2개 모델 발표



朴炳哲 사장

쌍용컴퓨터(대표 朴炳哲)가 지난 8일 32비트 퍼스컴 드래곤 386시리즈 2개 모델을 발표했다.

美인텔사로부터 마더보드를 OEM방식으로 공급받아 제작된 이들 제품은 최대 24MB, 보조 기억용량 최대 6백 60MB로 기존 16비트퍼스컴 XT기종의 10

배에 달하는 초고속 자료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들 제품은 OS로 MS-DOS는 물론 UNIX, IR-MX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한글·한자 그래픽 처리가 가능해 전자출판시스템 및 CAD/CAM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APL 자동화사업 참여

同社は 또 최근에 포항중합제철의 APL (Annealing & Pickling Line) 자동화 프로젝트를 수주, 개발에 들어갔다.

APL은 스테인레스 스틸 플랜트의 가장 중요한 최첨단 공정으로 컴퓨터 컨트롤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스테인레스 스틸 플랜트의 생산성 향상·에너지절감·품질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APL자동화시스템을 위해 同社は 전체 시스템은 Modern Control Concept (DDC·DCS)을 중심으로 APL 자동화에 필수적인 Math, Model을 도입 적용하며, 효율적인 생산지시 및 생산실적 관리를 위해 비즈니스 컴퓨터와 광케이블에 의한 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VINUS-I 개발, 시판

한편, 지난달 20일부터 각종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할수

있는 자동응답시스템 VINUS-I (Voice Information Network for User Service)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VINUS-I은 호스트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공중전화망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할수 있는 대화식 정보입출력시스템.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하며, 또한 단말장치로 MFC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어 음성편집 및 합성·전화사서함·전화번호·교환회선제어·음성인식·정보전달·진단기능이 있어 처고객서비스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同社は 음성인식 기능 및 전문가시스템의 기능을 앞으로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대우통신

TDX-1A 접속장비, DSLB 개발



朴成圭 사장

대우통신(대표 朴成圭)은 T-DX-1A의 접속장비인 디지털가입자결합팩 (DSLB)을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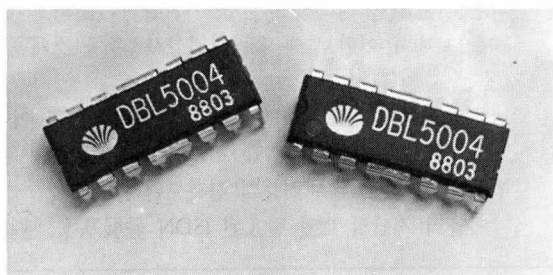
DSLB는 기존 하드웨어의 변경없이 소프트웨어의 추가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접속장치로, 공중전화망을 통해 기존의 음성뿐 아니라 56Kbps 급 초고속 비음성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DSLB는 착신가입자 응답송출기능, 전압보호기능, 가입자측의 입·출력신호의 변환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어 비음성서비스의 접속장비로 폭넓은 사용이 가능하다.

Speech Network IC, DBL-5004 개발

한편, 대우통신은 전화기에 사용되는 스피치네트워크 IC (DBL-5004) (사진)를 개발, 판매를 시작했다.

DBL-5004는 트랜지스터 저항등 약 300개의 소자를



2×2 mm 칩에 집적하여 애널로그 IC로 제작되었다.

이 제품은 송·수화AMP, MIC AMP, DC 안정회로, MUTE 및 각종 보호회로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종전의 수입제품에 비해 GAIN REGULATION이 우수하고, 사용전류범위가 넓으며, 1.3V의 저전압 및 2.5mA 저전류에서 동작이 가능한 것이 특징.

한국전기통신공사

올림픽통신수요대비, IBS 구축



李 祐 在 사장

한국전기통신공사(사장 李祐在)가 올림피기간의 통신수요에 대비하고, 정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美·日 주요 방송사 및 신문사와 전용 IBS(국제고속디지털회선)를 구축·운용키로 했다.

IBS는 전화 1회선으로 최대 24회선에 해당되는 음성·비음성·영상정보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용도에 따라 64Kbps와 1천 5백 44Kbps 등 두가지 전송속도로 소통될 예정으로 전화·팩시밀리·사진전송·방송·전산망접속·구내 교환망과 연결, 사용이 가능하다.

모두 8회선이 공급될 IBS는 국제방송센터(IBC)에 집결된 올림픽경기와 관련 방송 및 통신정보를 IBC에 설치된 이동위성통신소와 금산·보은위성지구국을 통해 NBC를 비롯한 미국내 10개 방송사와 일본 교도통신·아사히신문사에 직접 전송할 수 있는 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일경제신문사

日經 TELECOM II, 영문정보서비스 개시



張 大 煥 사장

매일경제신문사(대표 張大煥)가 日經 TELECOM의 새로운 패키지 「Nikkei Telecom II-Japan Financial News & Data」의 국내 제공을 지난달부터 시작했다.

Nikkei Telecom II는 경기지표·상품·주식·채권·금리·물가·기업정보 등 최선경제, 경영정보에서 전세계 뉴스까지 총망라 필요한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제공하는 영문서비스.

同社는 이번 日經 TELECOM 영문 II 정보 서비스를 계기로 기업경영의 연구개발 및 경제생활에 필요한 알찬 정보를 더욱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진흥(주)

사무실 이전



梁 承 澤 사장

한국통신진흥(대표 梁承澤)이 지난 1일 여의도 사무실을 다음과 같이 이전했다.

주소: 종로구 적선동 161-1 생산성빌딩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838호

대표전화: 734-9951

編輯後記

서울올림픽이 目前에 다가왔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보이지 않는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이번 올림픽무대에서는 電算人들이 그 역할의 일부를 담당해 왔다. 이들이 흘린 땀을 거름으로 대회기간중 전산올림픽이 꽃을 피우게 된다.

온갖 難關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電算技術의 矜持와 自信感을 세계에 드높일 전산인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호에 올림픽전산시스템을 소개한다.

×

×

電氣通信事業法 개정(안)이 立法예고 되었다. 이 개정(안)에는 당협회의 法制委員會가 3개월여의 기간을 통해 업계의견을 취합·검토하여 관계당국에 건의한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會員社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지난달 보완 발표된 ISDN 發展基本計劃의 세부내용을 다음 호부터 게재할 예정이다.